



3차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실제(3)

- 그 밖의 것
 -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리
- 
- 

목 차



▶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 외래어 표기법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 《한글 맞춤법》의 ‘그 밖의 것’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 한자어에서 **본음과 속음**으로 나는 것의 표기법
- **예사소리**로 적는 어미
-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
- ‘-더라’, ‘-던’, ‘(-)든지’의 정확한 사용
- **구별**하여 적어야 하는 말 등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승낙?



오륙십?

승락?

오육십?

✎ 한자어에서 본음으로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제6장 제52항]

본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분노(忿怒)

토론(討論)

오륙십(五六十)

속음으로 나는 것

수락(受諾), 쾌락(快樂)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愛樂)

의논(議論)

오뉴월, 유월(六月)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제가 청소를 할게요.(O) / 할께요.(x)

형민이가 형수보다 더 키가 클걸.(O) / 클께.(x)

✎ 위와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제6장제53행]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성깔?

성갈?

일꾼?

일군?

귀때기?

귓때기?

코빼기?

콧배기?

성깔(O)

성갈(X)

일꾼(O)

일군(X)

귀때기(O)

귓때기(X)

코빼기(O)

콧배기(X)

✎ 위와 같은 단어에 붙은 **점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제6장 제54항]

➡ ‘-깔, 꾀, 때기, 빼기’ 등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컷더라?

컷드라?

무섭던가?

무섭든가?

똑똑하던데?

똑똑하든데?

어제 보니 순희가 많이 컷더라.(○) / 컷드라.(×)

그게 그렇게 무섭던가?(○) / 무섭든가?(×)

승민이가 참 똑똑하던데!(○) / 똑똑하든데!(×)

✎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제6장 제56항]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가든지 오든지?



가던지 오던지?

가든지 오든지(○) / 가던지 오던지(x) 빨리 결정해라.

책이든지 공책이든지(○) / 책이던지 공책이던지(x) 마음대로 사라.

✎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제6장 제56항]



1. 그 밖의 것 : 개별 형태나 특수 발음,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관한 구체 내용

▶ 하노라고 / 하느라고

- 열심히 하노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 하 + 노라고
- 열심히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 하 + 느라고

▶ -(으)므로/ (-ㅁ, 음)으로(써)

- 나는 선생님을 믿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 믿 + 으므로(어미)
- 나는 매일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하 + ㅁ + 으로(써) (조사)

✎ 위의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제6장제57행]



2. 외래어 표기법



2.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기초 지식 확인해 보기

Q 다음 밑줄 친 단어(외래어) 중에서

표기법이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어제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들의 교수법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은 다섯 시간 동안 3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과별로 진행하였다. 분과는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 토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워크샵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잠깐 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커피샵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빵집에서 맛있는 빵도 사가지고 왔다. 주요 강의 장면이나 열정적인 토의 과정은 캐머러에 담아 결과 보고서 자료집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외래어 표기법

▶ coffee 코피? 커피?

➔ 커피

▶ coffee shop 커피샐? 커피샵? 커피숍?

➔ 커피숍

▶ workshop 워크샐? 워크샵? 워크숍?

➔ 워크숍

▶ camera कै머러? 카메라?

➔ 카메라



2. 외래어 표기법

▶ 기본 원칙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1장 제1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1장 제2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1장 제3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제4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장 제5항]



2.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1장 제1항]

- 외래어의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할 수 없을 때라도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의 새로운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

예 'thrill' [θril] : '스릴'로 표기

▶ 'θ' 표기를 위해서 새로운 글자나 기호를 만들지 않음



2. 외래어 표기법

-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1장 제2항]

예	fighting	파이팅(O)	화이팅(x)
	family	패밀리(O)	훼미리(x)
	frypan	프라이팬(O)	후라이팬(x)

▶ [f] 소리는 항상 ‘ㅍ’으로 적는다.

- ▶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운과 기호가 일대일 대응이 되거나, 또는 이대일 대응이 될 때도 있음

- 일대일 대응 사례

coffee shop ‘커피숍’, pilot ‘파일럿’에서 [p] → ‘ㅍ’, ‘ㅍ’

- 이대일 대응 사례

ribbon ‘리본’, model ‘모델’에서 [r], [l] → ‘ㄹ’



2. 외래어 표기법

- ▶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1장 제3항]

예 robot	로봇(O)	로볼 / 로볼(x)
supermarket	슈퍼마켓(O)	슈퍼마켄 / 슈퍼마켈(x)
workshop	워크숍(O)	워크썬(x)
stick	스틱(O)	스틱(x)



2. 외래어 표기법

-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제4항]

▶ 파열음이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ㅂ', 'ㅃ', 'ㅍ', 'ㄸ', 'ㄹ', 'ㄺ', 'ㄻ', 'ㅋ' 와 같은 소리)

예	bag	백(O)	뱃(x)
	bus	버스(O)	버스(x)
	Paris	파리(O)	빠리(x)
	café	카페(O)	까페(x)



2. 외래어 표기법

-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장 제5항]
 - 이미 굳어져서 그것을 고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굳어진 관용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 예** camera [kæməɾə] 캐머러(x) → 카메라(O)
radio[reidiou] 레이디오(x) → '라디오'(O)





3. 정리



3. 정리

- ▶ 한자어에서 **본음으로**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음

예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樂) 등

- ▶ ‘-ㄹ게, -ㄹ걸’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음

예 ‘내가 할게요.’, ‘내가 할걸.’ 등

- ▶ ‘-깎, -꾼, -때기, -빠기’등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음

예 성깎, 일꾼, 볼때기, 코빠기 등



3. 정리

- ▶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음**

예 '어제 보니 순희가 많이 컸더라.',

'그게 그렇게 무섭던가?', '영민이가 참 똑똑하던데!'

'가든지 오든지 빨리 결정해라.', '책이든지 공책이든지

마음대로 사라.' 등

- ▶ '-느라고', '-노라고', '-(으)므로', '-(으)므로(써)' 등을 구별하여 적음



3. 정리

-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음
-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음

예 fight - 파이팅

- ▶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씀

예 robot - 로봇

-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bus - 버스, café - 카페

-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예 camera - 카메라, radio - 라디오

